

광주 어린이집 불... 신속한 대피로 피해 최소화

광산구, 원생 낮잠시간 화재 발생 7명 연기 흡입·1명 경상 치료 중 스프링클러 작동·대피 지침 준수 교사·학부모 "다행" 안도의 한숨

"연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아이들을 안고 급히 대피했습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낮잠 시간에 불이 나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31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6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35분만인 오후 2시 25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불이 확산되기 전 원생 39명과 교사 11명 등 50명은 신속히 대피해 큰 인명 피해

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연기를 흡입한 어린이 7명이나 바로 옆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린 관계자 1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어린이집 관계자 3명은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어린이집 옆 병원 응급실은 연기를 흡입한 원생 치료와 화재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학부모들로 분주했다.

병원 화장실에서 만난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는 서로 부둥켜안으며 "큰 피해 없어 다행이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화재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화재가 감지되면 교사들은 영유아들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 시키고, 남아 있는 영유아 확인,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화, 비상구 이용, 119 신고 등을 권하고 있다.

이번 화재 발생 직후 어린이집 교사들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했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연기가 퍼지자 1층에 있던 영아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곧바로 2층 유아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모두 잘 대응했다"고 당시 순간을 전했다.

이날 화재는 어린이집 건물 지하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이 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며 1층은 전소됐지만, 2~4층은 불길이 번지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 내 차량 또는 분리수거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



31일 오후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물을 뿌리며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다. 광산소방 제공

학교 떠난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대거 복귀

대규모 제적사태 피해

학교를 떠났던 전남대와 조선대의대생들이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 대거 복귀하기로 했다.

3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후 5시까지 전남대 의대는 전날 전원 복학 방침을 밝힌 휴학생 600명 중에 1명을 제외한 599명이 복학원을 제출했다.

조선대도 이날 오후 6시께 휴학생 680여명 전원이 복학원을 제출, 복학을 결정했다. 다만 두 대학 모두 이번 학기 공식적인

복학 신청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최종 승인에는 교육부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동맹휴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강 3주 이내', '수업 일수 4분의 1선' 등 대학별 학칙 규정 대신 교육부가 제시한 '3월까지'를 복귀 시한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전국 40개 의대의 복귀 상황을 취합해 의대생 복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과대학 학장단 등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

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의대교육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 총원은 각각 893명, 878명이다. 이 가운데 전남대 697명(78%), 조선대 689명(78.5%)이 이번 학기 휴학을 신청했다.

정유철 기자

광주시·5·18기념재단, 스카이데일리 대표 고발

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편향 혐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대책"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보도로 논란이 된 언론사 대표가 광주시와 5·18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북한개입' 등을 은·오프라인에서 주장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31일 광주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월5일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 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다"며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것이다. 5·18은 DJ(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다"고 발언하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의 '5·18특별판'은 '5·18

진실 찾기'라는 기획 보도물로 제작돼 지난해 1월, 4월에 이어 지난 2월 광주 탄핵 찬반집회 당시 금남로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의 북한군 침투설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여부를 검증, 지난해 6월 '사실이 아님'으로 '진상규명' 결정됐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피고발인의 주장은 사법부와 법에서 정의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며 "5·18을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해 남한을 적화하려고 책동한 것에 광주시민이 속아 넘어가 발생한 폭동이라고 왜곡·편향했다"고 말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편향은 사회적 갈등과 비움을 야기하고 있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이 기자

전자팔찌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 하루만에 평택서 검거

여수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평택에서 검거됐다.

31일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A씨(48)를

검거했다. 강도죄로 복역을 마친 A씨는 보호관찰 대상이었는데, 지난 30일 오후 12시 51분께 전남 여수 여천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전자팔찌 훼손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없었는지 조사 중에 있다.

정유철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록!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